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주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빌립보 1:21)

주간
주관
충현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사회복무실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원 편집국장: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위험과 신앙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이노 일어서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욥 1:5-6)

불순종으로 생긴 위험

본 장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욥 1:2)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피하고자 힘썼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스스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사 139:7-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갑니다. 바로 이때 위급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고, 그 결과로 요나가 탄 배는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릅니다. 이 세 가지 순차적인 위험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벌어진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나타난 위험한 일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위험 앞에 무력한 인생

엄청난 위험에 함께 직면한 사공과 요나와 선장의 대처하는 행동은 각기 다릅니다. 사공은 몹시 두려워하며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자신들의 신에게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의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나를 찾아 무슨 연고인지 고하라고 간청합니다(8절). 그들은 절박했습니다. 살아남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온갖 위험 앞에 철저히 무력한 우리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위험이 닥치기 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막상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순식간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럴때면, 엄청난 자연재해(허리케인, 지진, 화산폭발, 번개, 해일 등)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험한 자연재해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만듭니다. 파도가 인간을 덮칠 때나 폭풍이 인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때, 지진이 인간을 삼킬 때나 뜨거운 용암이 인간을 녹일 때, 번개가 인간에게 내리 칠 때, 인생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그저 아픔은 곁대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위험에서 발견되는 신앙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의 바다가 풍용해지면서 배에 탄 사공과 승객들을 위험하게 되면 비록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일지라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신앙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절절히 깨닫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렇게 위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원리적으로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시며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막상 위험한 일에 처하면 자신감을 잃고 신앙심도 약해집니다.

그때에 그들은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 생명의 수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위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다만 위험한 상황에 처한 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믿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장을 통해 들린 하나님의 음성

배의 선장은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나는 큰 풍량이 닥친 위기의 순간에 배 아래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이노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6절). 선장이 요나에게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말과 참으로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고 선장은 “일어서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선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는 참으로 괴로웠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려 했는데 선장은 그에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부르기 싫었을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 그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선장의 모습은 죽은 아내를 찾는 레위인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 레위인은 문지방에서 죽은 아내의 시신을 향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사 19:28)라고 말했습니다. 선장이 요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치 죽은 아내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던 레위인의 행동과 흡사합니다.

요나는 영과 육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잠잠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잠에 빠지려는 그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잠의 위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의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나 큰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은 실제로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이토록 큰 실망과 공허와 침체가 가득하고 그로 말미암아 어두운 일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적인 수면상태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요나 당시의 이방인들은 세 가지의 신, 곧 자신과 가족 그리고 국가를 섬기고 있었습니. 선장은 요나에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지켜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 오직 요나의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하실 수 있었습니.

선장은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을 위험에서 건져 줄 절대자를 찾고 있었습니.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급한 곳에서 구해내고 풍랑을 잠잠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달랐습니. 그분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물이 뿌려진 빈제물을 태우 시기도 한 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분의 계획이었습니.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절대 그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현실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안전히 거할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은 매우 위험한 가운데 놓이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만 누구보다 더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심으로 모든 대답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감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감시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릅시다.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그분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 속에서 삼 일을 보낸 후에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통하여 다시 사용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백을, 우리 나라를 다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와는 달리,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나가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

Sermon of pastor Kim



Danger & Devotion

"All the sailors were afraid and each cried out to his own god. And they threw the cargo into the sea to lighten the ship. But Jonah had gone below deck, where he lay down and fell into a deep sleep. The captain went to him and said, 'How can you sleep? Get up and call on your god! Maybe he will take notice of us, and we will not perish.'" (Jonah 1:5-6)

This chapter begins with the Word of the Lord commanding Jonah to 'arise and go' to the land of Nineveh. Jonah is disobedient. He doesn't agree with God's orders and tries to escape from having to follow them. He heads in the opposite direction, taking passage on a ship. His attempt at escaping is, of course, useless because no one can escap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Ps. 139:7-12). From here though, we see the development of a real emergency situation. God causes a strong wind; which in turn causes a great storm on the sea; which in turn causes the danger of the ship sinking. These three things happen because the man of prophet doesn't listen to God. The danger that ensues from these events also cause many things to happen.

Today's Scripture passages reveal the acts of conduct in the face of great danger of the sailors, Jonah, and the captain. The sailors are terribly afraid and each one calls upon their own god for help. When that doesn't work, they try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by dumping ship cargo into the sea to lighten the ship so that possibly it might have a better chance of not sinking. When that too doesn't work, we see further on that through divination they beseech Jonah for an answer. They are desperate - they want to live. Their actions show us that they fear death.

This type of conduct reminds us of our own powerlessness in the face of danger. Prior to danger, many people think and thus act like they are in control. When danger strikes, all of a sudden things change and reality sets in. In the presence of the great forces of nature (hurricanes, tornadoes, earthquakes, volcanic eruptions, lightning, hailstorms) man feels his own physical feebleness and helplessness. Danger reminds us of the certainty and brevity of human life. When the waves may swallow you, or the winds may blow you, or the ground may engulf you, or the hot lava may burn you, or the skies energy may electrocute or pound you - the beauty and preciousness of life becomes apparent.

The treacherous sea, as in this narrative, threatens to overwhelm the sailors and passengers. Danger drives these sinners to seek God's mercy. When human help proves unavailing, then the godless call upon the real God. Although this is certainly right in principle, it is fruitless in practice. Access to God is solely through Jesus Christ. Those who believe in the Gospel know that God watches over them and cares for them for good. Danger draws forth the confidences and prayers of the pious. They may experience an unexpected deliverance from danger or they may face the perils of that danger. Whatever the case, it will be whatever the Father above decides. Their souls are eternally safe. As such, their conduct reflects their beliefs.

The captain of the ship noticed that Jonah was below deck sleeping. We read at the end of verse 5 that when this terrible storm struck, Jonah indeed had gone below into the hold of the ship, lain down and fallen sound asleep. The captain approached Jonah and said, "How is it that you are sleeping? Get up, call on your god. Perhaps your god will be concerned about us so that we will not perish (v. 6). It's ironic that the words of the captain to Jonah are so like the words of God to Jonah. God said, 'arise and go'. The captain says, 'get up and call on God'. God's message is again heard by Jonah through the captain. To Jonah, this must have seemed like a nightmare. The captain is

requesting that he 'call on God' - the very opposite of what he wants to do. Jonah doesn't want to call God, because his very purpose for getting on this ship was to hang-up on God - not call Him!

I suppose the most alarming thing is finding Jonah asleep. His conduct is appalling. It reminds me of the story of the Levite man who found his wife dead on his doorsteps and said to her, "Get up and let us go" (cf. Judges 19:28). The captain is asking Jonah for an action that like the Levite man who asks his dead wife is not possible. Jonah is not just physically sleeping but he is also spiritually asleep. As I look at it, his sleep is like a real depression. When God put Adam to sleep to create Eve, he did so, so that Adam would feel no pain (cf. Genesis 2:21). Jonah sleeps to escape the pain of disobedience but his efforts do not prevail. The captain is awakening him, disturbing his sleep, placing the phone in his face and ordering him to 'call God'!

Recently, in our churches there are a lot of spiritual leaders who are really asleep. Look at our country. It is in trouble - real trouble. We are experiencing terrible economic problems. The human solutions are not working. The people of our country are in danger! The real problem is that we are spiritually dying. We are in a deep sleep - totally out cold. There is real depression - emptiness - blankness - darkness in our land. The answer to our problem is in God's message, 'Arise and go'. Does anyone hear the message?

The religious customs of the pagans at that time consisted of three gods: personal, family, and national. The captain says, 'Perhaps your god' will be concerned about us. Obviously, their gods weren't concerned and just maybe Jonah's God would be. In desperate measures, he is searching for something or someone to change things. His hope is that Jonah's God will concede their peril and do something about the storm. Their gods could and did ignore people; they were not constantly watchful over worshipers (cf. 1 Kings 18:26-29). Whereas Yahweh was different - He could do things - incredible things like bringing fire from heaven to consume a wet sacrifice.

God made these events happen. It was His plan. The whole story of Jonah reveals His redemptive power. When you are disobedient, you cannot escape from God. You must go back to devotion - it's the only way to safety. Anytime our life is in danger, we are powerless. Everyone calls on God when they are in trouble. Not everyone can get an answer. Only those who know and love Jesus hear His answer. Our God starts everything - He gives answers.

We don't really look at the beginning of our political and spiritual strife. Let's go back to devotion to Yahweh. This is His plan. Let's get His blessing in the name of Jesus. Let's confess our sin. If we ask with repentant hearts, for He knows the desires of our hearts, in the name of Jesus - the Holy Spirit will bless us. He will bless our way and we will have victory.

Jonah's true devotion came in the three days spent in the belly of the fish. Even though he was disobedient, through his repentance, God still used Him. God is a merciful and great God. Let us repent and pray that God use us again - this church - this country. Unlike Jonah, who was commanded to go to Nineveh - we are commanded to go and disciple all the world's nations. Let us hear the message of God 'Arise - Get-up' and let us 'go'!

떡과 포도주 성찬의 표지(標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삭배에 또한 알과 같이 잔을 가져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3b~25)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 인류의 두 번째 배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 그 밤은 기억될 만한 밤이었다.

그 밤은 주님의 공생애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전주곡과 같은 사건이었다. 그 밤은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이자 처형, 죽음을 앞둔 신자 주님에게는 의의성전과 긴장된 밤이었다. 그 밤은 어둠이 밀려들 듯 죽음이 밀려드는 밤이었다. 이 긴장된 밤은 기쁜 유다가 배반하고 있는 밤이기도 했다. 최악의 유다의 영예에 찾아왔으며, 유다는 구약이며 친구이신 스승을 배신하고 적들의 공격을 인내하던 밤이었다. 어둠은 죄를 상징한다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불의는 어둠의 밤에 발자국을 하기 때문이다.

● 그 밤은 배반을 이긴 밤이었다(배반과 승리가 공존하는 밤).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던 유다, 그는 돈으로 한잔할 수 없는 한신을 보이며 향유를 붓던 여인을 비난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수의 공생애를 끝맺게 하는 음모를 꾸미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배반과 죽음이 엄습해 오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성만찬을 제정하셨다. 이것은 승리였다. 배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승리의 밤이었다.

● 그 밤은 신이 민족을 이긴 밤이었다(탐욕과 선함이 공존하는 밤).

마귀가 유다를 사로잡아서 붙잡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유다는 유능한 배후추진 본심과 다른 행동은 했다. 그의 자부심을 좌편은 사람을 재판한 것이다. 그의 입맞춤은 좌편의 상징이 되었으며, 예수를 통한 조종의 행위였다. 그의 입맞춤은 십자가에서 떼려 못보던 더 깊이 예수의 마음을 찔렀고, 더 깊은 상처를 냈다. 그러나 그 밤에 예수께서는 그의 발을 씻어주셨고, 찬구로서 역시 그를 잡기도 주셨다. 주께서는 유다가 가장 마귀처럼 되고, 가장 성전인 하나님이었다.

● 그 밤은 은혜가 죄악을 이긴 밤이었다(세움과 오소임이 공존하는 밤).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베냐민) 야부와 모두가 배반자였다. 유다는 돈을 위해 배신을 했으며,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이유로 그들의 따름을 버렸다. 베드로는 주를 부인했고, 빌라도는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립했다. 모두들 때가 바뀌었다. 이러한 연약함과 배신의 가능성을 모두 알고 계셨을 예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계속 사랑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는지? 그분에게는 죄악 대신 은혜가 있었으며, 속진 대신에 진실과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마음의 무익을 행할지 아니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되었음을 알고 깨닫고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은혜는 모든 죄악보다 우월한 것이다. 왜 하더라도 은혜는 모든 죄악을 이기기 때문이다.

“나를 기념하라” - 명령

● 기념은 역사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유월절의 성취).

예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이야기나 능력, 심지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념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희생과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유월절의 절기를 자처하면서, 이 유월절의 주인이 인도자로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기념 하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유월절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생각해 보라).

● 기념은 권장과 관련되어 있다(예수를 따를라는 것).

기념일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것을 되새기듯이, 주의 성전도 제자들이 과거에 실재하였던 경험했던 것보다 과거에 관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자들이 단번에 드러난 세상(히 9:28)은 결코 반복될 수 없으니, 성찬을 행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들의 과거와 그가 제물이 되신 희생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마주의 죽음은 한 번으로 완전하지만, 그의 죽음임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 기념은 선인과 관련되는 것이다(민음의 교백).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의 신 개배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에서 그분을 향한 경외심과 감사와 은총을 동일하게 느끼기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이다. 그분은 주님이요 우리의 종이요, 우리가 과거에 죄와 사망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분의 성취에서 그분과 함께 나누는 그분의 이름임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은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리이다”라고 고백한다.

“떡과 잔” - 성찬의 표지

● 외적인 표지

기독교 성찬인 세례와 성찬에는 각각의 표지가 있다. 세례의 표지는 ‘물’(water)이고, 성찬의 표지는 떡과 포도주이다. 특히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의 외적 표지인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인 것이며,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상징이다. 주님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재료를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영적이고 신적인 식탁의 생령양식으로 삼으셨다.

● 내적인 의미

외적인 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의미이다. 세례의 표지인 물이 귀중한 내적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성찬의 표지인 떡과 포도주에도 아주 귀중하고 존엄한 내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외적 표지인 떡과 포도주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 떡과 포도주에 담긴 내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영적이고 신비한 요소이다. 비록 초자연 음식이지만, 그 떡과 포도주에 담긴 영적이고 내적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 믿음으로 하기야 되는 공생애-분열을 극복하는 능력

그렇다면 성찬의 표지인 떡과 포도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영적이고 신적 인 공생애를 보여준다. 한 홀, 한 홀의 곡식들이 모이고 흩어져서 떡이 되고, 포도 한 알, 한 알이 모이고 이끼와져서 즙을 되듯이, 하나님과 동행한 분배자나 자를 비어 종의 형제를 일으킨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를 부양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성찬의 성취에 초청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룩한 교제(holy communion)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에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는 영적인 연합의 신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를 받는 자들은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기쁨과 고난을 나누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희생과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순례자임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내면의 악의적 속삭임과 외면의 적마귀의 권세에 대항하여 함께 싸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쁜 유다의 배반은 당연한 결과이다.

● 영의 양식

또한 떡과 포도주는 신자를 강건하게 하는 영의 양식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주신 이 초자연 음식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건하고 힘있게 하는 생령의 양식이다. 그렇다. 믿는 자들이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생령의 양식은 이 세상의 도전과 죄로 인하여 상하고 지친 영혼을 치료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사하시고 기뻐하신 주님의 영생을 함께 해주는 천국의 식사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혼을 우리들로는 성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늘의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분의 영명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의 고통과 광활을 함께 잘라내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야도록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해야 한다.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함께 고난과 순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것이 ‘산 산양’(living lamb)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성취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내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가 성찬의 성취에서 베푸시는 생령의 양식을 받아먹고 나를 포기하고 그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나누기 전장으로 일지도는 것이다.

● 믿음의 양식

초자연 떡과 포도주에 담긴 놀라운 내적인 의미는 초자연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내적인 의미와 같다. 배움과 이론으로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하늘의 은총이 배움과 이론,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떤 하늘의 문이 그를 향해 활짝 열릴 것이다. 초대교회가 주께서 제정하신 초자연의 식탁을 세상에나 인간의 것들로 상사하게 혼합하지 말라, 주께서는 보잘 것 없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먹으면 한다면 하늘의 은총을 넘쳐히 부어주시실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 임재에 대한 비유적 어법

● 비유를 통한 교훈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마 26:26)라고 한 말 앞에는 상징적 어법이다. 성경에 이러한 어법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비유를 자주 사용하심은 하겠다. 비유를 역시 성경을 봉헌하고 나야 하므로 이 어법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믿는다. 한말 실례로 변화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며 하며, 그는 가까이 그렇게 주장했을 것이다(고전 10:23, 11:26~28).

● 개파와 교회영적 이해설

결론은 로마 교회, 루터파 교회, 그리고 찰스웰리교회와 교회의 견해에 반대했다. 그는 양자의 중간적인 의견을 표출하였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양제 내의 그리스도의 영적 양식을 가졌다. 찰스웰리교회와 의견을 달리하여 성체의 보지 같은 양제와 신자가 성체에서 기념하는 신비적 교회를 강조하였다. 또한 성찬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보증이라기보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를 위한 하늘의 표징이요, 보증으로 보았다. 십자가와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보상은 생령의 능력에 의해서 합당한 수산자에게 제공되므로 또한 신자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 권리와 의무

● 은혜에 대한 보충

국가에 공기를 상징하고, 결혼한자는 두 사람이 하나되었음을 상징하듯이, 성체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상징이다. 즉,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의미로 이해되므로 은혜에 대한 보충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아주 평범한 일이 은혜의 수단 이 된 것이다.

● 사랑의 신도와 성체

본래 성체사건인 말은 군인이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봉사를 맹세할 때 사용하는 것이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을 통하여 그들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다하며, 필요하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맹세를 하게 되었다.

● 충성을 맹세할

이 세상에서 자기의 하늘의 두 왕국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피로써 맺어진 ‘새 언약’을 이룬 것이다. 이의 공로로 믿는 집인과 우리를 위해 죽신 그리스도를 맺은 것이다. 그러리니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더 나은 것을 잘 이해한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살아계신 주

송요한 (전도사, 외선부 부지도)

CIS국가에 살던 나는 어릴 적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다. 그로 인해 나는 하나님은 없으며 예수도 거짓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믿지 말라고 설득, 권장하였다. 그러다가 92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교육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선교사와 단기 선교팀들이 몰려들어와 CIS의 젊은이들은 사상의 혼란을 겪었다. 나 역시 단기 선교팀으로부터 성경책을 받고 관심 있게 읽어보았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 둘씩 믿고 교회에 나왔다. 나도 친구들을 따라 젊은이들과 교제도 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교회에 나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임이 믿어지진 것은 아니었다. 교회에서 성경공부도 시작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18년 동안 신은 없다는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쉽게 무너지겠는가? 내 안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주변 친구들이 자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나도 믿어보고 싶었다.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믿을 없이 교회를 다니던 중, 금요집회를 참석했다. 그 금요집회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그 후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 신학교에 들어갔다. 내가 살고 있던 나라는 기독교 일꾼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학부공부만 하고도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사역을 하다가 성경을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국에 유학 와서 지금은 총현교회 외선부 사역을 하고 있다.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는 참으로 살아계신다.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2)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말라와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 16:3).

저희 팀은 선교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의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선교지는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인도입니다. 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지역원과 청년부, 대학부의 지원을 받아 11명의 대원들이 모였습니다.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8박 9일의 일정으로 인도의 학교와 마을들을 다니며 노광전도와 축조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마을 사도는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마케도나 환상을 보고 유럽을 선교하였고, 언더우드 선교사도 인도에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했지만 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이 인도하신 역사입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하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선교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기고, 능력있게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순종하여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

1. 교회 방침에 따라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2. 팀원들이 서로 선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3. 인도에서 만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4. 성령 충만한 팀이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8교구 8학역장
손기현

2003년 하나님의 막대기

단기 선교의 인도자, 지역장 (33)

7월 28일에 내팔로 떠납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팀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팀원들이 모여 단기 선교를 가게 되니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몇 명의 대학부 젊은이들이 함께 가게 되어 기뻐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전도하는 것이 비전이지요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 모두가 교회로 인도하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함께 단기 선교팀을 꾸릴 소망을 가졌습니다. 처음가는 단기 선교인해도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가게 되어 그 비전이 이뤄진 것처럼

기쁩니다. 팀장으로서 좋은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팀원들의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상황에 맞춰 조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팀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과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이 처음이지만 팀원들 모두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2교구 13지역장
임복섭

(열정적 기자)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2교구 6지역	이영환	키르기스스탄	7월 8일(화)-7월 16일(수)
10교구 4지역	조영철	불가리아	7월 8일(화)-7월 18일(금)
13교구 3지역	권영주	카자흐스탄	7월 9일(수)-7월 22일(화)
13교구 4지역	임채봉	카자흐스탄	7월 9일(수)-7월 22일(화)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12교구 2지역	정영래	카자흐스탄	7월 1일(화)-7월 11일(금)
9교구 7지역	김승곤	카자흐스탄	7월 4일(금)-7월 15일(화)
14교구 5지역	황기용	몽 골	7월 4일(금)-7월 15일(화)

◆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10교구 7지역	최지윤	몽 골	6월 23일(월)-7월 2일(수)
17교구 7지역	김연근	카자흐스탄	6월 24일(화)-7월 4일(금)
3교구 6지역	정창수	몽 골	6월 27일(금)-7월 5일(토)

CMTC 집중훈련 안내

그동안 시간적 여유 등으로 수강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CMTC 집중 훈련을 더욱과 같이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에 교육 훈련을 수료하여 단기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1. 일 시: 2003년 7월 17일(금) 9:00-18:00
2. 장 소: 김릴리움
3. 대 상: 단기 선교 신청자 및 관심있는 성도
4. 회 비: 학생 5,000원 / 일반 10,000원

강의시간	교육과목	강 사
1강 (9:00-9:50)	영성 훈련 (I)	정민현 목사
2강 (10:00-10:50)	교회 선교정책	이종철 목사
3강 (11:00-11:50)	선교 역사 (I)	고광환 목사
4강 (12:00-12:50)	선교 역사 (II)	인정현 목사
점심시간		
5강 (14:00-14:50)	전도 실제	여국근 목사
6강 (15:00-15:50)	팀훈련의 실제 준비 및 사역	방준영 목사
7강 (16:00-16:50)	단기 선교 이론과 실제(나별)	여성기 목사
8강 (17:00-17:50)	영성 훈련 (II)	이종대 목사

* 전반기 CMTC훈련 수강자 중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으로 인해 수료하지 못한 성도는 금번 집중 훈련에 미수과목을 수강하여 CMTC를 수료할 수 있음.

내 안에 사는 이

양 효 진 (공동부)



철 없이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채우려 했던 저의 꿈이 바뀐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에 여러가지 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아니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 개인적인 문제와 집안의 문제 등 건디기 힘든 일들이 매달 설 세 없이 터지면서 누구보다 부모님께서 힘드셨겠지만, 어린 저 또한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노래를 포기 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고 매일 보면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세요. 나빠요. 왜 이해하는 건가요?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찬양하며 헌신했던 결과가 이젠가요? 다른 집도 아닌 주님을 믿는 우리집이 왜 이해하는 것이고, 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교회에 나가지 않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겠어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한 없이 큰 소리로써 울고 원망했습니다. 주일에는 부모님께 교회 간다고 말하고 나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영적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투리하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의 저는 힘든 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주권 없이 분위기에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와 가족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자만하고 고만했던 저를 바꾸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작았던 믿음은 굳건하게 해 주셨기입니다. 이전의 저는 주일이 되면 형식적으로 교회에 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노래할 목적을 만들어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하여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세상적인 음악을 하려고 노래를 했습니다. 게다가 중등부 예배에서 찬양을 할 때에는 남들에게 저를 과시하기 위해 찬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를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저는 그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바로 알고, 제가 삶 가운데서 항상 그분께 집중하기를 기도합니다.

장학생 인터뷰 11

천국일꾼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즉 전도와 찬양 등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양 선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뚜렷한 계기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학생회에서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며, 실제로 주인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에 가는 날이 아니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잘 시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이 되면 교회 봉사에 소극적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봉사에만 치중하고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가 '내

게 돌며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3)입니다. 말씀 따라서 항상 주 안에 있어야 하는데 시험기간이 되거나 하면 주님 밖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천국일꾼으로서 항상 주님 안에서 교회 봉사에 더욱 충실하고 시험기간에도 주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가까이 할 것입니다.



김경(공동부)

죄에서 자유하기로

백 지 수 (공동부)



저는 주일 아침에 세례 받는 것을 축하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세례 받기 전 세례를 받고 느낀 점을 글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큰 기쁨보다 "이제 정말 새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압박감과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 자신이 없는 나약한 마음과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많은 걱정들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찬양예배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도 세례 받는다는 기쁨보다 두려움과 '글을 못 쓰는데 어떡하지... 세례받은 느낌을 뭐라고 써야 하나?' 하는 생각들이 머리 속이 꽉 차있었습니다. 하지만 찬양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여러가지 문답에 "아멘"으로 대답하면서 세례받기 전에 두려움에 떨던 제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가슴속에 뭔가 뜨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벅찬 감격과 저의 죄인된 모습들이 머리 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모하고 진정할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서 나왔던기보다는 친구들과 놀고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워 그냥 교회만 왔다가 하는 그런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내다가 제 마음에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지 의심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가대도 잘 서지 못하고 주일에 교회에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조금만 피로한 일이 생기면 "왜 어려운 일들이 저에게 닥치는 것을 보고만 계시니까? 주님, 정말 계시니까?" 하시면서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지라고 하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한심하고 꽤 많았던 죄인인 저도 부모님께서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권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많은 말씀 끝에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NO"라고 대답하는 무늬만 신자였던 저를 보면서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 하셨을지..., 그래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불러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어리석은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제 자신은 주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었던 옛 사람을 부인하고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깨달아 눈물로써 회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뵙는 날까지 주님만을 찬송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고통에 직면하는 성도들 1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셨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6-17).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비유한 말이 아니다. 말씀 그대로 인간은 죄의 대가로서 재배와 피비네의 고통, 생존을 위한 수고의 고통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러나 사단은 다르게 이야기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 3:4).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이야기한다. "너는 수고하지도 고통 받지도 지배하지도 않을 수 있어. 그렇게 되어야 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존재이니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수고도 고통도 없을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인가? 분명 이 말은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는가? 혹, 이러한 죄인의 고통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실제로 증언 교회 한 성도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성경은 오히려 끊임없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한다. "자녀인도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롬 8:17).

세상에 죄가 있는 한, 모든 인간은 고통을 받는다. 어떤 인간도 예외일 수 없다. 하나님을 경멸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인간도 고통을 받는다. 단,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 영원히 그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그 고통이 끝난다는 것이 다르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죄와 고통이 떨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으로 죄의 본성을 벗고 고통도 사라지는 것이다. 즉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한은 고통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피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 고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다음주에 계속)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초 (권오섭)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



12. “해도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자신의 헌신적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건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4, 15). 여기에서 바울은 감동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매우 이지적(理智的)인 표현으로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생각건대…” 즉, 바울은 단순히 감동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이 있게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고 배웠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오늘날의 전반적인 추세는 차분히 앉아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깊이 있게 읽어가며 끈기 있게 묵상하는 것보다는 먼저 가슴으로 뜨거운 감동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십자가를 알지 않았다. 그는 십자가를 깊이 생각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의 구원이나 유익과 관련해서만 십자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의미와 목적까지 헤아려 보았고 고품이 묵상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확신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도록 만들었다.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간혹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해도 안 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대답은 이것이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 실패의 원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동적으로만 알 뿐,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선행하게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도록 하자.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준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새로운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로이드 존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는 이번 호로 마감이다.
(이태복 목사)

다음 주일 찬송

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가는 엘리자 해밀턴(Eliza H. Hamilton)이 작시하고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Ira David Sankey, 1840-1908)가 작곡했다. 생키는 무디의 부흥집회에 영혼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그 소녀는 목사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때 목사님은 이사가 53장을 읽어보라고 했다. 배운 것이 없어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읽을 수 없었던 그녀는 그 순간 생명의 감동을 받아 “주님 부족한 이대로 날 받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이 일화를 듣고 감명을 받은 생키는 그 소녀의 신앙과 마음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해밀턴의 이 찬송가를 만들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은은하고 부드럽게 부르면 더욱 은혜를 누리게 된다.

- 1절: 예수 나의 주여, 주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나니,
주님께서 들지 않으신다면 절망에 이를 수 밖에 없사오니
나를 이대로 받으시고 당신의 값없는 구원을 허락하소서.
- 2절: 무기력하고 죄가 가득한 나,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 보혈을 쏟으셨나니,
주 뜻대로 나를 빚으사 나를 이대로 받으소서.
- 3절: 나는 아무 준비도 할 수 없고 최선의 결심도 부러질 뿐이니라,
주의 이름 위해 구원하시고 나 이대로 받으주소서.
- 4절: 구주여 당신 발 아래 엎드린 나를 받으소서, 그러한 곳 보내주소시니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이루어소서.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 후렴: 내가 오직 간구할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모습 씌운 몸이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진실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 (찬양원회)

영양호실

14교구 신정구역 박인걸 청년 박석두 집사님 아들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다가 지난 월요일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쾌유하여 주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7교구 은행구역 강정임 집사 위암 말기로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현재, 식사가 힘들며 통증이 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권사 수련회를 마치고

오 덕수 (권사, 8교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성령을 좇아 행하라”라는 주제로 권사 수련회를 가졌다.

이중대 목사님의 말씀의 요지는 성도는 성령으로 거둔다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령으로 거둔다면 성령께서 항상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성도가 추구해야 할 바는 성령 충만함이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진실한 삶이다. 또한 윤인숙 전도사님은 권사들은 고만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씀들을 들으며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겸손함과 사랑과 온유와 관용으로 권사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성경암송대회에서는 잠언 19장을 외웠는데, 팔순이 넘은 권사님들까지도 마지막 절까지 다 외워 모두가 같은 기쁨을 누렸다. 특히 찬양 경연대회에서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밝은 표정,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찬양함으로 참 평화를 맛보며 하나가 되었다. 또한 동심으로 돌아가서 율동을 할 때에는 옆에 앉은 권사님이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기쁨 어떻게 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참여한 모든 권사님들이 같은 심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 옥 란’성도를 소개합니다



저는 불교신자였는데 불교 교리를 배우다보니 캣타워 들 듯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어 15년 전에 기독교로 전향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은 후 자꾸 기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시켜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생활이 여의치 않아 교회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조카머느리가 church에 다녀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등록하지 않고 그냥 대예배만 참석하다가 영혼의 문제는 배움을 통해서 성당하는 것 같아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가족부에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주시길 구해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새가족부에서 배운 말씀 중에서 의문 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모두 믿습시다. 특히, 내가 죄인이라 회개를 하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는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편진실)

새·가·족·을·함·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92	이경희	2 청년부	최희영(11)	804	김재욱	12 청년부	김미리(5)	816	최은영	19 신촌가정부	이명옥(13)
793	최종길	6 청년부	이진규(6)	805	강재희	12 청년부	강창성(12)	817	조지현	19 청년부	윤재호(19)
794	이종민	7 청년부	홍복기(7)	806	강종현	14 청년부	강진숙(8)	818	양주원	19 청년부	이영란(2)
795	김진희	8 청년부		807	김정웅	15 청년부	정영태(12)	819	홍두두	19 대학부	전제현(2)
796	홍한	8 중동부		808	김지은	15 청년부	김진혜(1)	820	오가나	19 대학부	전은순(11)
797	전준우	9 청년부	이보진(1)	809	김규진	15 청년부	문경희(10)	821	홍재지	19 대학부	구기찬(2)
798	김갑동	10 청년부	강재형(8)	810	문정민	15 청년부	문경희(10)	822	나현원	19 대학부	이원희(19)
799	양창모	10 청년부	최옥자(4)	811	김정희	16 청년부	최진혜(16)	823	김진연	19 대학부	박지순(19)
800	황소라	10 청년부	김정희(6)	812	김진희	16 청년부	전은아(4)	824	이창규	19 고등부	
801	김성태	10 청년부	김미리(7)	813	김진희	19 청년부	김은소(4)	825	전 용	19 고등부	배정수(16)
802	이성남	10 청년부	김미리(7)	814	이하은	19 청년부	이승하(19)				
803	이윤영	12 대학부	고미리(12)	815	관은진	19 신촌가정부	임이영(5)				

여름 수련회로 오세요

김 태 민 (중등1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치부 강혜진 가정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라는 제목의 2003년도 중등1부 겨울 수련회를 갔다와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깨달음도 많이 얻었다고 생각한다. 끝난 뒤에는 여름 수련회가 언제인지 기대가 될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했다. 사실, 자기 전에는 가 봤자 아는 애들도 없고 아는 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얼굴만 아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봉고차에 타고 가는 도중에도 아는 애들끼리 왁자지껄 떠들었지만, 나는 아는 친구가 없어 그냥 묵묵히 창 밖만 바라보았다. 나는 한숨을 쉬며 온 것을 후회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아이들과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수련회에 오게 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없어져 갔다. 무엇보다 수련회에서 특히 기억나던 것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눈물로 우리 중등1부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무엇이 선생님들을 저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게 만드는지 생각했었다. 그리고 가슴이 찡한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한껏 떠들며 엄마에게 수련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쁘다고 말했다.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는 제목으로 개최하는데 참 기대된다. 친구가 없어서 여름성경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나 수련회가 재미없어서 나오지 않는 학생들은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따뜻한 사랑으로 기다리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무한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련회로 손짓하고 계신다. 이번 수련회에는 친구들이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다.

레살로 니가전서 (1 Thessalon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또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견디어 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을 견고하고 있음을 생각하기 바랍니다(살전 1:3, 1:4, 2:8, 3:6, 3:12, 4:9, 5:8, 5:13).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기게 하며,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한 힘이 됩니다(롬 8:39).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환난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바울의 뜨거운 가슴을 느끼면서 읽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교회에 붙어다니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부활과 장차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읽기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롬 5:3~4).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 담긴 서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핍박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고난이 주는 고통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소망과 사랑으로부터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것입니다.

김동하 목사(순환국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해진이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다. 해진이는 엄마, 아빠의 직장생활로 갓난 아이 때부터 고모들 손에서 자랐고, 고모들을 따라 화요일 기도원,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예배까지 드리며 한 주일의 스케줄이 온통 주님 안에서 양육되어진 아이다. 유치원에 들어가서는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 것"을 작은 입술로 고백하여 얼마 아빠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였다.

얼마 전에는 유치부에서 십계명을 암송하였다. 그런데 암송을 하던 중 해진이가 "우상이 뭐예요?"하고 묻는 것이었다. "우상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란다"라고 대답하면서 우리와 정말 말씀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우리 가정은 이렇듯 해진이를 통해서 도전을 받을 때가 많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18:3). 주님, 해진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정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여로보암 (왕상 12장)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새샘을 건축하고...또...부느엘을 건축하고"(12:25)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 된 후, 북왕국의 초대 왕으로 여로보암이 즉위합니다. 왕위에 오른 여로보암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하여 수도를 정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였습니다. 또 남쪽 유다 백성들과 철저한 분리를 위해서 사악한 종교정책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우상숭배의 발단이지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28절a). 인간의 계획이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형상화하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보지 못한 것을 섬기는 일이 익숙하지 못하므로, 신앙의 대상을 형상화하기를 좋아하지요. 그 형상은 보이는 것 일수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내적으로 구제화하여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기도 하지요. 물질관, 축복관이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물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의 자리에 이미 가시화된 축복의 대상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왕상 12:28).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열심이 무용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꼭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어디에 있니?"하고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구대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을 가리키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힘으로 임하시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쓸데없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숭배함이라"(30절).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형상을 별면과 단에 둘니다(29절). 그들은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출 20:4). 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소(예루살렘)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였습니(신 1:5). 그 결과 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운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르는 열심은 죄(罪)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권형일 기자)

교회소식

모임

- 1. 정기기도회
일시: 9월(수) 수오2부 예배 후
장소: 성회실
- 2. 권사 지혜 월례회
일시: 9월(수) 수오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 3. 안수 집사와 월례회
일시: 오늘(주일) 15:30
장소: 교육관 201호(유아부실)
- 4. 장년 2부 여름 수련회
일시: 7월 7-9일(월,화,수) 18:00
장소: 충현기도원
- 5. 설립인 전도와 영성 훈련 및 월례회
일시: 13일(화) 18:30
대상: 회원 부부
장소: 충현기도원
- 6. 경찰 전도의 월례회
일시: 13일(주일) 15:30
장소: 본당 지하 112호

별세

- 1. 황윤진 타교집사 황진순 집사의 부친, 김태웅 집사의 장인, 1교구 한서2구역/ 6월 26일 별세, 6월 28일 장례

주소 변경

- 1. 장용희 안수집사, 한재순 집사
강남구 논현동 133-1 ☎ 543-6815

◆ 남녀 전도의 상반기 회계감사 실시

전도 위원회에서 2003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1. 감사기간: 2003년 7월 첫 주부터
- 2. 대상기간: 2003년 1월 ~ 6월
- 3. 감사장소: 전도위원회 (교육관 6층)
- 4. 준비서류: 시표 2부 (2003년 1월 ~ 6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 율터아동복지회 초청 국외입양 가족 본교회 방문

본 교회에서는 연례 행사로, 율터아동 복지회 초청 모국 방문을 맞아 신령한 믿음을 교제를 통하여 모국의 문화와 신앙정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15가족의 민박 및 초청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 민박을 자원해 주신 봉사자 장면에 감사하며 본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 2003년도 하반기장학생 신청안내

- 1. 선별대상
①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1년 6월 30일 이전 등 록자
②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학한 중·고·대·대학 원·신학대학원 학생
③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
- 2. 신청기간
2003년 6월 22일(주일)부터 2003년 7월 13일(주일)까지
- 3. 신청장소: 교육국 ☎ 552-8200 #472, 473
- 4. 문 의: 교육국 ☎ 552-8200 #472, 473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7월 5일(토) ~ 7월 6일(주일)
- 2. 방문팀명: 미국 해외의 팀
- 3. 인원: 총 28명 4. 주관: 선교위원회

이반주 새벽기도회 담당

	7(월)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정수/강철형	장 홍/강진태	임현덕/정상구	이희식/안소호	최홍철/이용환	하종철/김정신	서정환/전은희

예배 담당안내 (7/9-7/13)

날짜	예배	예배 전 찬양	사회 기도	설 교
7/9	수오1		정현민 오영준	영원히 계속되는 기적요 12:30 여왕기 목사
7/9	수오2		이유진 임영선	영원히 계속되는 기적요 12:30 여왕기 목사
7/11	금요일회	특별찬양이슬아침 경로와 소리로 이어나가며 찬양가	이성기 김동학 목사	
7/13	주일1		김영훈 노영환	복음주의 생명의 1-100 회관장 목사
7/13	주일2	날마다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찬양한가(찬양가 출로아르)	박정규 박정규	복음주의 생명의 1-100 회관장 목사
7/13	주일3	주 예수 내게 영기 진 피로써로 장성한가(찬양가 출로아르)	서정환 김영은	회복의 생명의 15-40 평안민 목사
7/13	주일4	나 카토라는 그 시선 피어내온 김소연(고등부 오케스트라 악장)	김영민 고대승	회복의 생명의 15-40 평안민 목사
7/13	주일5	주 나에게 주신 피의 피아노(합창 오케스트라)	김동희 김동희	복음주의 생명의 1-100 회관장 목사
7/13	주일찬양		고광현 김동희	예수의 존귀(6:11-18) 이윤진 목사

직원 모집

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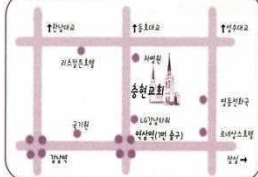
- 1. 모집부서 동산 신역관인(속신제)공
운전직·미화직·경비직
주방(충현어린이집)554-7054
- 2. 자력 세례교인
- 3. 재출 서류 자필 이력서
주인등록등본
당장향 추천서(타교인)
-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는 곳

충현기도의 창

-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 유하게 하소서.
- ③ 정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를 힘쓰게 하소서.
-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권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힘써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교구별 대신자 전도와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제책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본 · 들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원문이아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회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출발
금요일회	오후 11:00	금요일출발 분당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교육관 110호
유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201호
	II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처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5호
초 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9:3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부	오후 12:20	교육관 501호
장 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소 랑 부	오후 12:15	강 련 리 홀
신혼가족집회	오전 12:15	교육관 205호
사 랑 부	오전 11:00	복사관 지하1층
가족학부	오전 9:30	강원리홀, 배다니홀
송년어린이집	주안교육국	교육관 107호
조기교육원	주안교육국	충현 복지관
국제대어린이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충현선교훈련원	오후 6:10	강 련 리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 Smritious translator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권 이병학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정환 박인기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장로
여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권역
김교성 이윤진 안창덕 방준영 나영영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장로
정진호 김동덕 이성국 고광현 위진광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권역
김이환 김경수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권역
최충현 최충현 안치원 이태복 정중신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장로
양재용 고대승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 전도목사 이서철
- 어전도사
정현희 신동호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권역
홍순애 이옥주 김재우 안태순 김경연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권역
조옥주 강덕철 김정신 강재구 최문실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권역
전은희 김경순 김경자 이수정
신교목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2교구장
- 찬양감독 강인규 신정필자서 서준성
- 찬양감독 김소연
- 단기선교 강기영(소명)
- 협력선교사 하효성(소명)